

번역윤리 논쟁: 베이커(Baker) vs 뎀(Pym)을 중심으로*

이 향
(한국외국어대)

1. 왜 번역윤리인가?

현장의 통번역사에게 통번역은 문학적 은유나 사변적 성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통번역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촉박한 마감일, 통번역료의 협상으로 구체화되는 치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무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번역학이라는 학문 공간으로 건너온 소위 실무연구자 (practisearcher)¹⁾는 어떤 개념이나 가설도 일차적으로 그들의 실무 경험에 대입해 보게 된다.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맞는가? 현장의 체험과 일치하

*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통역학자 다니엘 질(Daniel Gile)이 1995년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체험담 수준의 신변잡기적 통역 연구와 거리를 두고 실무를 병행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역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자를 지칭하는 개념이었으나, 이후 그 의미가 확장되어 실무만 하거나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이든 번역이든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는 모든 연구자를 통칭한다(참고 Gile 1995: 15; Orlando 2016: 54).

는가? 어찌 보면, 실무와 직결된 문제들이 이들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번역윤리²⁾에 대한 논의는 통번역 실무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일단 ‘윤리’는 ‘스코포스’나 ‘등가’, ‘충실성’처럼 통번역 실무와 밀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이었을까? 국내 번역학계에서 번역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³⁾ 물론 국내 번역학의 역사가 20년이 채 안 된다는 사실⁴⁾을 떠올려 보면, 번역윤리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수입하거나 소화하지 못한 여러 해외 담론들 중 하나일 뿐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국내 학계의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학계에서 번역윤리 문제는 9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로빈슨(Robinson 1991), 체스터먼(Chesterman 1997), 티마즈코(Tymoczko 2007) 등이 번역윤리 문제에 주저의 일부를 할애⁵⁾ 하였으며, 핼(Pym 1997), 코스키넨(Koskinen 2000), 베르만과 우드(Bermann & Wood 2005), 베이커(Baker 2006), 메쇼닉(Meschonnic 2007), 잉길레리(Inghilleri 2012) 등은 아예 윤리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본격적 논의를 개진하였다. 유수의 국제학술지들이 윤리 문제를 다루는 특별호⁶⁾를 기획하기도 하였

- 2) 저자에 따라 번역윤리(Ethics)와 직업윤리(Code of Ethics)를 구분하기도 하나 국내 및 해외 번역학에서 현재까지 ‘번역윤리’ 논의가 종종 직업윤리 논의를 포함해 왔음을 감안, 본 연구에서 ‘번역윤리’는 통역윤리, 번역윤리, 번역사윤리, 직업윤리 등을 모두 포괄한다. 다만 추후에는 번역윤리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번역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실무적, 구체적 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문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번역학연구> 지의 경우 ‘윤리’ 혹은 ‘번역윤리’로 검색되는 논문은 세 편에 불과하다. 선영아(2008)와 이미경(2009)은 주로 베누티, 베르만, 스타이너 등 문학번역 영역에서의 윤리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지은(2011)은 사법통역사의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신지선(2012), 윤성우(2015), 함희주(2016), 박미정(2016) 등이 이론적, 실무적, 철학적, 문학적 차원에서 번역윤리 문제를 다룬 바 있다.
- 4) 언어학이나 문학 내부에서 수행된 번역에 대한 연구와 별개로 ‘번역학’이라는 학문명이 제도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은 국내에 번역학 전문 학술지, 번역학회, 번역학 박사과정 등이 생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5) 로빈슨(1991)의 제4장, 체스터먼(1997)의 제7장, 티마즈코(2007)의 제8장을 참고한다.
- 6) 2001년 *The Translator* 7(2)는 ‘The Return to Ethics in Translation Studies’라는 제목의 특별호로 기획되었으며, 2004년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17(2)

다. 번역윤리 문제는 2000년대 초에는 일종의 ‘사회적 트렌드’(Pym 2001:129)로, 보다 최근에는 번역학계의 일곱 가지 새로운 경향 중 하나(House 2016)로 언급되기도 하였다.⁷⁾

생각해 보면, ‘윤리로의 회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 90년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이후, 번역을 단순한 언어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하고 기술하던 순진한 시대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번역에 대한 논의는 번역을 둘러싼 문화, 사회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충실성’이나 ‘등가’ 개념만으로는 극도로 복잡다단한 오늘날의 통번역 현상을 설명해 낼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House 2016: 27, 130). 그런데 번역에 대한 논의가 충실성이나 등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번역사의 ‘선택’과 ‘태도’의 문제가 되는 순간, 번역은 ‘윤리’의 문제와 조우할 수밖에 없다. 번역윤리라는 것은 결국 번역사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성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Koskinen 2000: 14).

본 연구는 국내 번역학계에서도 번역윤리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까지 해외에서 진행되어 온 윤리 담론의 핵심 쟁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우리의 실무 현장과 교육 현장에 비추어 검토, 비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우선 번역학 초기의 윤리 논의를 부분적으로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번역윤리 관련 논의 중 대표적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커(Baker)와 핼(Pym) 간의 상반된 윤리론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번역윤리 논의가 함의하는 바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은 “Translation, Ethics, and Society”라는 제목의 특별호로 발행되었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도에는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5(1)가 “Ethics in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ing: Critical perspectives”라는 제목으로 통번역 교육에서의 윤리 문제를 다루었다.

7) 하우스는 번역학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데올로기, 윤리, 정치적 행위, 내러티브, 다문화 사회에서의 번역의 역할, 미시역사적 연구, 에코-트랜스레이톨로지(Eco-Translatology) 등 일곱 가지를 언급한다(2016: 25-31).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급된 일곱 가지의 주제 중 이데올로기, 정치적 행위 등 상당수가 직, 간접적으로 윤리 문제와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논의의 범위 설정

번역윤리에 관한 논의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번역학이 번역윤리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가 최초로 번역윤리를 말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번역학 안에서 번역윤리는 극도로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학번역의 영역에서 타자, 혹은 낯선 것의 수용 문제도 윤리와 닿아 있으며, 번역과 이데올로기, 혹은 권력의 관계에 천착한 연구⁸⁾ 혹은 포스트식민주의 연구, 젠더 연구, 통번역사 직업윤리 등에 대한 논의들도 윤리 문제를 포함한다(House 2016: 27). 법정통역, 이민자 통역 등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통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역시 본질적으로는 윤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번역학 안의 거의 모든 영역이 일정 정도의 윤리 논의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체스터먼은 번역학의 핵심 이론 및 접근들이 각각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를 기준으로, 기존 이론담론들을 크게 재현 윤리, 서비스 윤리, 커뮤니케이션 윤리, 규범 윤리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Chesterman 2001: 139-142). 잠시 체스터먼의 구분을 살펴보자.

우선 ‘재현 윤리(Ethics of representation)’에서 ‘재현’의 대상은 낯선 타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낯선 언어로 쓰여진 타자의 텍스트이다. 여기서는 이국의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represent)해 내는 것이 번역의 지향점이자 존재이유라고 본다. 독일낭만주의와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베르만, 베누티의 논의들이 재현⁹⁾ 윤리로 분류되며 충실성, 진리 등이 화두가 된다.

두 번째로 ‘서비스 윤리(Ethics of service)’는 특정 고객을 위해 수행되는 상업적 서비스로서의 통번역에 초점을 맞춘다. 스키포스 이론을 포함한 기능주의적 접근, 고객 뿐 아니라 수용문화 독자에 대한 책임성(loyalty)을 강조하는

8) 번역과 참여(engagement)에 관한 연구들의 간단한 개괄은 티마즈코 (2000: 24)를 참조한다.

9) 여기서 슐라이어마허와 베르만, 베누티에게서의 ‘재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노드(Nord)의 번역론 역시 서비스 윤리를 토대로 한 번역론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윤리(Ethics of communication)’란 타자의 재현이나 서비스가 아닌 타자와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이다. 타자 윤리를 논할 때 빼놓지 않고 인용되는 레비나스(Levinas)¹⁰⁾, 그리고 타자(혹은 타문화)와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윤리적 번역사라고 보는 핼의 협력(cooperation) 이론 등이 커뮤니케이션 윤리로 언급된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전문직업으로서의 통번역(profession), 그리고 문화간 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전체 시스템이다.

네 번째는 ‘규범 기반 윤리(Norm-based ethics)’로 번역이 어떠해야 한다는 도착문화의 인식을 포함, 번역의 생산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범이나 기대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는 번역론이다. 투리(Toury)를 위시한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이 여기에 속한다.

‘윤리’라는 키워드의 위력적 설명력을 보여주는 체스터만의 분류¹¹⁾는 지난 40년간의 번역학이 결국 다양각색의 윤리론이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체스터만의 분류에 동의한다면, 번역학은 일종의 ‘번역윤리학’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번역윤리에 대한 이론적 성찰은 번역학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실제로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의 태동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기, 번역윤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저서가 발표되었다고 믿는 저자도 있다. 굿윈(Goodwin)은 1975년 출판된 스타이너(Steiner)의 『바벨 이후』(After Babel)를 번역윤리에 관한 가장 일관된 성찰 중 하나로 꼽으며 번역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 책이 ‘기술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번역학계에서 홀대’받았음을 안타까워한다(2010: 27).

번역의 과정을 네 단계의 해석학적 운동¹²⁾으로 설명한 스타이너의 번역론을 일종의 윤리론으로 보는 그의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 초기 신뢰, 침투, 구현, 회복 등 해석학적 운동의 네 단계 중 번역윤리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것은 두 번째 단계인 ‘침투’와 세 번째 단계인 ‘구현’이다. 스타이너에게 있어서 번역은

10) 번역학 내에서 레비나스의 윤리론을 소개한 논의로는 라코슈(Larkosh 2004)와 레이그(Laygues 2004)를 참조한다.

11) 체스터만의 분류 관련 상세한 논의는 신지선(2012: 117-118)을 참조한다.

12) 상세한 설명은 스타이너 ([1975] 1998: 312-435)를 참조한다.

타자의 언어의 껍질을 부수고 침투해 들어가는 작업이다. 번역사는 원전에 담긴 의미를 포로로 잡아 데려오기 위해 원전에 침투하여 뭔가를 빼내 온다 (Steiner [1975] 1998: 314). 타자의 언어, 혹은 타자의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에 폭력이 가해지는 이 두 번째 단계야말로, 번역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뒤이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번역사는 원전으로부터 사로잡아 온 의미를 자신의 언어 안에 받아들이게(incorporate) 된다. 타국에서 잡아온 포로를 위한 자리를 모국어 안에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타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화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국어가 낯선 언어와 접촉해서 발생하는 흔들림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역시 윤리적 성찰을 요하는 대목이다. 번역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를 포괄적이고 방대한 예시를 통하여 기술한 스타이너는 번역행위에 수반되는 ‘폭력성’과 이로 인한 자기 ‘손상’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번역윤리 논의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윤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번역학적 논의의 중요한 축이었다. 번역학의 서로 다른 담론들은 궁극적으로 번역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번역이나 통역을 수행하는 주체가 어떤 태도로 번역에 임해야 하는가 등 본질적으로 윤리적 성격의 물음에 대한 다양한 답들인 것이다.

이렇듯 번역학 내의 거의 모든 논의가 윤리 담론을 포함한다면, 번역윤리에 관한 논의는 무한히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모두 망라하는 것은 본 연구의 의도도 아니며, 본 지면의 한계 내에서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논의의 방향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윤리 관련 최근의 논의 중 가장 큰 반향과 논쟁을 불러 일으킨 베이커(2006)와 그에 대한 펴의 비판을 개괄하고, 이 논쟁이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이 논쟁이야말로 오늘날 번역학 안에서 개진되고 있는 번역윤리를 둘러싼 상반된 두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3. 번역윤리 논쟁: 베이커 vs 뎀

초기 번역윤리 논의의 상당부분은 문학번역의 영역에서 개진되었다. 특히 스타이너를 위시로 하여 베르만, 베누티로 이어지는, 소위 ‘재현의 윤리’를 토대로 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원전, 원저자, 충실성의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된다. 원전이 아닌 도착어 문화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 놓은 기술번역학 진영 역시,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로서의 번역,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번역자의 선택과 다양한 규범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이 텍스트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말해 번역의 주체인 번역사로 옮겨갈 경우, 논의의 결은 완전히 달라진다.

통역사나 번역사의 윤리적 결단의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진 영역은 당연히 분쟁 상황에서의 통번역 관련 논의이다. 여기서 분쟁 상황이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통번역이 수행되는 전쟁 상황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다양한 국면들, 다시 말해 단순한 직능인으로서가 아닌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통번역사가 긴박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총칭한다.

번역윤리에 대한 담론이 텍스트를 중심에 둔 문학적 담론에서 일종의 ‘논쟁’ 단계로 심화된 결정적 계기는 베이커의 2006년 저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책의 제목(Translation and Conflict), 부제(‘A Narrative Account’), 서문, 말미의 용어목록, 색인 어디에서도 ‘윤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을 저자의 설명대로 피셔(Fisher)의 내러티브 개념을 활용하여 통번역 실무를 설명하려는 시도로만 보는 것은 순진한 해석이다.

베이커(2006)를 번역윤리론으로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다. 저자는 책이 출판된 지 2년 후 체스터만과의 인터뷰에서 ‘번역윤리를 구축해 내는 것’이 집필 목적이었다고 고백한다(Baker & Chesterman 2008: 11) ‘Ethics of renar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인터뷰에서 실제로 ‘윤리(ethics)’, ‘윤리적(ethical)’이라는 표현은 빈번하게 등장하며, 저자는 무엇이 윤리적 번역인지를 따지는 데 집중하는 베누티나 베르만과 달리, 특정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윤리적 결정에 이르게 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설명한다(Baker & Chesterman 2008: 12). 베이커에게 내러티브 이론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였을 뿐인 것이다.

내러티브 개념이 번역행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가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내러티브’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다. 베이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현실을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일종의 스토리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이 스토리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인에게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번역도 일종의 재-나레이션(re-narration)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개념을 활용하여 통역사나 번역사의 선택과 결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Baker 2007).

그러나 베이커의 접근이 가지는 과격성은 내러티브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통번역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에 있다. 저자는 통번역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 책의 출판 후 다양한 지면을 통해 소개된 베이커의 논점은 대체로 아래의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베이커는 원전의 충실한 재현으로서의 통번역을 믿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개입(intervention)은 통번역 행위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기본 입장이다(Baker & Chesterman: 2008: 16). 충실성, 중립성, 객관성 등 기존의 덕목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입장은 언뜻 보기엔 매개 없는 번역은 없다고 믿는 베누티와도 유사해 보인다(2013:187). 그러나 베이커의 접근은 윤리의 초점을 상황 속 번역사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베누티가 지배적 규범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번역함으로써 그동안 가려져 있던 존재인 번역사의 가시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베누티에게 있어서 타자 혹은 타자의 언어가 가진 낯섦이 유입되고 표현되는 공간은 여전히 텍스트, 구체적으로는 문학 텍스트이다. 그런데 베이커는 번역의 윤리보다는 번역사의 윤리, 특히 텍스트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통번역 행위에 개입하고 결정을 내리는 번역사에게로 초점을 완전히 이동시킨다.

이러한 논리를 따를 때, 베이커가 번역사를 문화 간 가교(bridging between cultures) 역할을 하는 중립적 중개자로 보는 낭만적 인식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복잡한 실무현장과 괴리된 이러한 담론이야말로 통번역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번역사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Baker

2011: 3). 베이커에게서 통번역사는 중립적 중개자(neutral mediator)가 아닌 능동적 사회 주체(social agent)이다. 능동적 주체인 번역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부합하는 통번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통번역 상황에 다양하게 ‘개입’한다.

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예들 중 베이커의 관점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닌 제닌 (Jenin Jenin) > 의 자막 번역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다. 저서에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Baker 2006: 99-100)된 이 예는 이후 체스터만(Baker & Chesterman 2008)이나 굿윈(2010: 20-23) 등에 의해 인용되면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제닌 제닌>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배우이자 감독 모하마드 바크리(Mohammad Bakri)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다. 제닌¹³⁾은 팔레스타인 서안 북부의 도시로 2002년 이스라엘 군대가 난입하여 시민을 학살한 곳이며, 이 영화는 학살이 벌어진 직후 학살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촬영된 54분짜리 다큐멘터리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베이커에 의해 언급된 이유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팔레스타인 노인의 비탄에 젖은 절규가 아랍어에서 영어로 옮겨진 방식 때문이다.

[아랍어 원문의 영어 직역]

“What can I say, by God, by God, our home is no longer a home”

[영어 자막 번역]

“What can I say? Not even Vietnam was as bad as this.”

(강조는 필자)

원문에는 없던 ‘베트남 전쟁’이 번역문에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번역자의 개입을 바라보는 베이커의 시선이다. 베이커는 미국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시민들에게 제닌의 참상이 잘 전달되도록, 다시 말해 <제닌 제닌>의 내러티브가 미국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미국인들에게 친숙하며 더 쉽게 공명을 일으키는 요소인 ‘베트남전’을 자막 번역자가 추가하였

13) 이 도시명은 ‘예닌’으로 옮겨지기도 한다.

다고 설명한다.¹⁴⁾ 물론 베이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선택이 옳았다거나, 모든 번역자가 이러한 식의 개입이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자막번역은 최종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러티브’를 이해 가능한 또 다른 내러티브로 성공적으로 대체한 사례로 제시된다(Goodwin 2010: 21).

논의의 참신함이나 파격성과는 별개로, 학계의 반응은 극도로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베이커(2006)를 획기적(groundbreaking)이고 호소력 있는(compelling) 저작이라고 평가하며 번역학의 일대 전기를 만들었다고 극찬한다¹⁵⁾.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베이커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은 예상대로 핼(2016)으로부터 온다.

베이커의 저서 『번역과 분쟁』은 번역에 대한 학문 연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 이론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학생들에 의해 타당한 연구방식인 것처럼 인용되고 있다(Pym 2016: 1).

과거 이스라엘 출신 학자들을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명단에서 배제¹⁶⁾하는 등 베이커가 취해온 일련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핼이 비판적(Pym 2012: 60)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베이커의 저작이 학문 연구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식의 평가는 상당히 가혹해 보인다.

핼의 비판은 우선적으로 베이커가 내러티브 개념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된다. 베이커가 사용하고 있는 ‘내러티브’ 개념이 번역학이 경험적 학문으로 성장해 오며 일궈온 것을 무너뜨리는 자의적이고 비

14) “In order to communicat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to a world public whose conception of gravity is conditioned by the political dominance of the USA - in other words, to make the Jenin Jenin narrative intelligible to a Western, and particularly American audience - the subtitlers recontextualize the event by evoking a narrative which is assumed to have moral resonances for those viewers (Baker 2006: 99).

15) 이 내용은 베이커의 저서 속지 소개문의 일부이다. 각각 캐나다 번역학자 브리세(Brisset)와 벨기에 번역학자 들라바스티타(Delabastita)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16)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가디언 지 2002년 7월 8일자 기사 “Israeli boycott divides academics”를 참조한다.

과학적인 분석틀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¹⁷⁾. 뫼는 여기저기서 얻은 단편적 정보들을 선형성(linearity)을 무시하고 짜깁기 한 것이 베이커 식의 내러티브라고 혹평한다(Pym 2016: 6).

뫼의 비판의 핵심은 이렇다. 내러티브라는 것이 우리가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고, 내러티브 없이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이해가 내러티브를 동반한다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내러티브의 감옥에서 마술처럼 혼자 빠져나와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베이커는 누구인가? 진정 내러티브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베이커는 세상을 선과 악(팔레스타인 vs 이스라엘, 아랍 vs 서구...)의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수단으로 내러티브 이론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베이커의 내러티브 이론이 가진 자의성을 비판하면서 뫼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베이커의 논의가 번역론을 가장한 정치 운동(political activism)에 가깝다는 것이다(Pym 2016: 2, 7). 과연 베이커의 주장은 윤리론인가 정치선동인가? 통번역사의 참여와 개입은 어디까지 용인되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뫼은 이러한 윤리적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쇄적 내러티브의 틀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이자 ‘교류’라는 것이다(Pym 2016: 5).

이미 오래전 뫼는 직업인으로서 번역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1997년 프랑스어로 출판된 후 2012년에 이르러서야 영어로 증보, 번역¹⁸⁾된 뫼의 윤리론은 ‘협력의 윤리’로 정리된다(Pym 2012: 3). 뫼의 번역윤리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베이커와는 달리 ‘왜 번역하는가(Why translate?)’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번역학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사로잡아 온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왜 번역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17) 경험과학으로서의 번역학을 옹호하는 뫼의 입장은 Pym (2010)을 참조한다.

18) 프랑스어본과 영어본 사이에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따라서 프랑스어본에 없던 내용이 저자에 의해 추가, 보완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프랑스어본에는 없었던 성경번역에 관한 장(Chapter 5 Missionaries)이 추가된 것이다. 뫼의 저서는 2016년 『문화간 중재 원칙으로서의 번역윤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필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필의 답은 간단하다. 번역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Pym 2012: 9). 한마디로 번역의 윤리적 지향은 문화 간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필은 그 구체적 내용을 아래의 5대 윤리원칙으로 제시한다.

제1원칙. 번역사는 번역을 하기로 한 이상 자신이 생산해 낸 번역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원칙. 번역자는 자신이 생산해 내는 번역물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원칙. 번역사의 윤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4원칙. 번역 비용은 번역으로 인해 파생되는 효익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5원칙. 번역자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며 따라서 자신이 수행한 작업이 장기적, 안정적인 문화 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Pym 2012: 166-167)

<제1원칙> 번역을 필 식으로 분석한다면, 번역자의 개입은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을 통하여 미국인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번역자는 이질적 두 문화에 ‘협력’을 제고한 셈이 되는 것이다.

베이커가 번역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할 때, 베이커는 필의 협력 원칙을 떠올렸음이 분명하다(Baker & Chesterman 2008: 16). 번역이라는 공간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협력과 이해의 공간인가? 혹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격돌하는 갈등의 공간인가? 혹은 둘 다인가?

4. 논의할 문제들

이상에서 우리는 번역학 내에서 개진되어 온 번역윤리 관련 논의들을 간략

하게 개괄하고 번역윤리를 둘러싼 베이커와 핼의 상이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두 저자의 입장은 첨예하게 부딪히나 사실 베이커와 핼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먼 것만은 아니다.

핼은 문학번역 영역에서 전개되어 온 추상적 윤리담론에 대해 늘 비판적이었다. 베르만을 위시한 프랑스의 철학적 번역담론이 번역윤리 문제를 현장의 직업윤리와 유리된 추상적, 철학적 차원에서 다루어 온 것을 비판한 바 있으며, 스타이너의 논의에서 추상적 단수명사로 등장하는 ‘번역사’가 대체 누구를 지칭하며, 그의 고객은 누구인지, 그가 수행하는 번역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Pym 2012: 2-4). 번역윤리 논의가 추상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실무 현장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번역사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기존의 문학적, 추상적 윤리 담론과 통번역 실무 현장 간의 괴리야 말로 베이커의 윤리론이 출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베이커 역시 기존의 이론 담론이 통번역사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행위의 본질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내지 못하며, 따라서 이들이 텍스트, 저자, 사회,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와 맺는 복잡다단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낼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aker 2007: 152).

그러나 동일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두 저자의 윤리론이 도달하는 지점은 상이하다. 협력과 대화를 모토로 삼는 핼의 윤리론은 참여와 개입, 저항을 키워드로 삼는 베이커의 윤리론과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아쉽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답해지지 않았다. 어쩌면 누가 옳은지 가려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번역윤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는 현 단계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은, 베이커와 핼의 논쟁이 노정하는 근원적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찰하는 작업일 것이다.

우선 핼의 협력의 윤리는 중립성, 충실성을 넘어서서 사회 내에서의 통번역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의미에서 핼이 객관성(objectivity)과 초연함(detachment)으로 요약되는 기존 윤리담론으로부터 한발 쭉 더 나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Baker & Chesterman 2008: 12). 그러나 이러한 윤리론이 극도로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을 모두 설명해 내기에 충분한가?

통번역 상황이 늘 갈등과 대결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통번역이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협력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번역도 현실 세계 속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협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양화하기 어려운 질적 개념이므로 매 순간, 무엇이 ‘협력’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한편 필름의 표현대로라면 상당히 ‘허술한’ 이론적 축조물인 베이커의 내러티브 접근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론적 완성도 문제와 별개로 베이커의 논의가 현재까지 윤리 담론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거나 혹은 ‘시치미 떼어 온’ 어떤 대목을 건드렸기 때문은 아닐까? 중립적, 객관적 매개자로 인식되고 기술되어 온 통번역사가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주체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통번역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개입과 참여를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이커가 환기시킨 것은 아닐까?

그런데 충실성이나 등가 패러다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중립적 전달이 아닌 개입과 참여의 공간으로서의 번역은 여전히 우리의 일반적 번역인식과 충돌한다. 실제로 굿윈은 전반적으로 베이커의 논의에 공감하면서도 <제닌 제닌>의 영어 번역에 추가된 ‘베트남전’을 불편하게 느낄 다수의 일반인 독자(혹은 시청자)를 언급한다(Goodwin 2010: 22). 영화를 보게 될 미국인들을 배려한 번역자의 선한 의도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원문을 재현해 내는 것이야말로 번역의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믿는 다수가 번역자의 ‘개입’에 대해 느끼는 거부함은 결국 번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개입 사이의 간극에 기인한다. 베이커와의 인터뷰에서 체스터만이 따져 물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이다. 참여적 번역(a more engaged, committed translation practice)을 역설하는 베이커의 주장은 원문의 등가로서의 번역, 원문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번역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베이커는 모든 개입이 텍스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번역사의 개입은 특정 업무를 수락하거나 거절, 혹은 선택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한다(Baker & Chesterman 2008: 13). 그러나 베이커가 예로 든 <제닌 제닌>의 번역자가 ‘베트남전’을 추가한 것은 분명 텍스트 차원의 개입이 아닌가?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 바깥의

경계선은 늘 선명한가?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핼과 베이커의 윤리 논쟁은 번역의 수행 주체인 번역사에게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번역학이 답해야 할 핵심적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단순한 매개자나 메신저를 넘어서 번역사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협력의 윤리와 참여의 윤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채택할 것인가? 번역윤리는 두 가지 중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핼과 베이커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했던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고, 번역윤리 논의를 국내 실무 현장이나 교육 현장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번역윤리 논의의 궁극적 목표이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참고문헌

- 박미정 (2016) 「비재현적 번역론 관점에서 본 문학번역 윤리」, 『통역과 번역』 18(2): 1-23.
- 박혜경, 최효은, 율김 (2016) 『문화간 중재 원칙으로서의 번역윤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지식출판원. (Pym, Anthony (2012) *On Translator Ethics*, trans. by Heike Walker,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선영아 (2008) 「‘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 연구』 9(4): 195-219.
- 신지선 (2012) 국내 번역 윤리 규정의 현황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 고찰, *T & I Review* 2: 113-128.
- 윤성우(2015) 「‘윤리’ 개념과 ‘도덕’ 개념의 구분을 통해서 본 번역윤리」, 『통역과 번역』 17(3): 101-118.
- 이미경 (2009)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 『번역학 연구』 10(2): 83-104.
- 이지은 (2011) 「사업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범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 『번역학 연구』 12(3): 197-224.

- 함희주(2016) 「통번역사를 위한 직업윤리 교육의 현황 및 인식」, 『통번역학 연구』 20(1): 229-249.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 (2): 151-169.
- Baker, Mona (2010)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War Zone: Narrated and Narrators', in Moira Inghilleri and Sue-Ann Harding (eds) *Translation and Violent Conflict*, Special Issue of *The Translator* 16(2): 197-222.
- Baker, Mona (2011) 'Ethics in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5(1): 1-14.
- Baker, Mona and Andrew Chesterman (2008) 'Ethics of renarration', *Cultus* 1(1): 10-33.
- Bermann, Sandra and Michael Wood (2005) *Nation, Language,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hesterman, Andrew (2001) 'Proposal for a Hieronymic Oath', *The Translator* 7(2): 139-154.
- Gile, Daniel (1995) 'Interpretation Research: A New Impetus?', *Hermes, Journal of Linguistics*, 14: 15-29.
- Goodwin, Phil (2010) 'Ethical Problems in Translation: Why We Might Need Steiner After All', *The Translator* 16(1): 19-42.
- House, Juliane (2016) *Translation as Communic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Inghilleri, Moira (2012) *Interpreting Justice: Ethics, Politics, and Language*, New York & London: Routledge.
- Koskinen, Kaisa (2000) *Beyond Ambivalence : Postmodernity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Academic Dissertation, University of Tampere,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 Larkosh, Christopher (2004) 'Levinas, Latin American Thought and the Futures of Translational Ethics', *TTR* 17(2): 27-44.
- Laygues, Arnaud (2004) 'Le Traducteur Semeur d'éthique: Pour une application de la pensée d'Emmanuel Levinas à la traduction', *TTR* 17(2): 45-56.
- Meschonnic, Henri (2007) *Éthique et Politique du traduire*. Lonrai: Verdier.
- Orlando, Marc (2016) *Training 21st Century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t the Crossroads of Practice, Research and Pedagogy*. Berlin: Frank & Timme.
- Pym, Anthony (1997) *Pour une éthique du traducteur*,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 Pym, Anthony (2001) 'The Return to Ethics in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or* 7(2), 129-138.
- Pym, Anthony (2010) 'On Empiricism and Bad Philosophy in Translation Studies', Available at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602.967rep=rep1&type=pdf>.
- Pym, Anthony (2012) *On Translator Ethics*, trans. by Heike Walker, revised and updated by the author,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ym, Anthony (2016) 'A Spirited Defense of a Certain Empiricism in Translation Studies (and in anything else concerning the study of cultures)', Version 4.3. March 8, 2016, Much revised draft of a paper to appear in *Translation Spaces* in September 2016, Available at https://www.academia.edu/22987955/A_spirited_defense_of_a_certain_empiricism_in_Translation_Studies_and_in_anything_else_concerning_the_study_of_cultures.
- Robinson, Douglas (1991) *The Translator's Turn*,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teiner, George ([1975] 1998)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Tymoczko, Maria (2000) 'Transl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Translator 6(1): 23-47.

Tymoczko, Maria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Manchester: Saint Jerome.

Venuti, Laurence (2013)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신문기사>

The Guardian, 'Israeli boycott divides academics',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uk/2002/jul/08/highereducation.israel>.

[Abstract]

Ethical Issues in Translation Studies

Lee, H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invite Korean TS scholars to take a greater interest in translation ethics by examining the research that has been done on the subject abroad. Since the birth of the discipline in Europe in the 1970s, major scholars in the field have discussed the ethical dimension of translation or translators' behavior in various ways. Surprisingly, ethics has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within TS in Korea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concerning this issu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ories and reflections on the subject, developed abroad, would be necessary to encourage discussion about translation ethics in Korea.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analyzes early discourse on translation ethics, focusing on Chesterman and Steiner's arguments for the importance of ethics in discussing translation. The second section explores the more recent but widely known polemics between Baker and Pym on translation ethics, highlighting Baker's ideas in *Translation and Conflict*, Pym's criticism of her approach, and his five principles of Cooperation. The final section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is heated debate between two of the most prominent scholars in TS and puts forward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 Key Words: Ethics of Translation, Translator ethics, Narrative approaches, Principles of Cooperation, Code of Ethics.

이향

한국의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번역학 발전사, 한국의 번역학, 번역윤리, 번역교육, 번역철학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